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1. 6. 10.(목) 17:00	배포일시	2021. 6. 10.(목) 16:00
담당과장	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김승태 (044-215-2770)	담당자	최정빈 사무관 99jbchoi@korea.kr

홍남기 부총리, 물가 점검 현장방문

- 해밀 광역계란유통센터 및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 -
 - 6월 수입계란 규모 당초 5,000만개에서 7,000만개로 확대 -

- 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'21. 6. 10(목) 오후, "해밀 광역계란유통센터(수입계란 처리업체)"와 "한국농수산물식품공사(aT) 이천 비축기지"를 방문하여 농축산물 가격·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음

< 물가 점검 현장방문 개요 >

① 해밀 광역계란유통센터(경기도 여주군, 수입계란 처리업체)

- 일시: '21. 6. 10.(목) 15:00~15:50

② 한국농수산물식품공사 이천비축기지(경기도 이천시)

- 일시: '21. 6. 10.(목) 16:10~17:00

※ 참석자 : 부총리,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, 농식품부, 농협경제지주, 한국농수산물식품공사 등

- 정부는 지난해 장마·한파로 인한 작황부진, AI 발생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계란 수입, 농산물 비축 및 적기방출 등 가격·수급안정방안을 추진해왔으며,

* "최근 인플레이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", 4.7일 제33차 경제중대본
 "최근 물가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", 6.2일 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

- 농산물은 수확기 도래 및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 등으로 3개월 연속 전월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

* 농산물 소비자물가 동향(전월비, %) : ('21.1)5.5 (2)7.2 (3)△1.9 (4)△1.7 (5)△3.5

- 다만, 전년대비로는 아직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, 축산물도 AI 영향 잔존,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가정 내 소비 증가, 계절적 요인 등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

* 농산물 소비자물가 동향(전년동월비, %): ('21.1)11.2 (2)21.3 (3)19.2 (4)17.9 (5)16.6
 축산물 소비자물가 동향(전년동월비, %): ('21.1)11.5 (2)14.4 (3)10.2 (4)11.3 (5)10.2

- 이에 따라 금일 현장방문은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 농산물 가격의 조기안정을 위한 주요품목 비축·방출 현황을 점검하고,
 - 아직 강세를 보이고 있는 축산물의 경우 계란 수입규모 확대방안 및 수입계란 처리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음

□ 홍부총리는 '21.1월부터 월 2천만개 수입란을 처리중인 (주)해밀을 방문하여 수입란이 세척·난각·포장 과정을 거쳐 공급·유통되는 현장을 살펴보았음

- 홍부총리는 서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계란가격의 조기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,
 - AI 방역으로 감소한 산란계 숫자가 정상화되는 6월말까지는 부족한 국산물량을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수입계란이 필요하다고 주장

- 이에 홍부총리는 6월 수입계란 규모를 당초 5,000만개에서 2,000만개 추가한 7천만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힘

* (1~3월) 6,400만개 → (4월) 4,000만개 → (5월) 4,000만개 → (62일) 5,000만개 → (610일) 7,000만개

- 아울러 추가된 2,000만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, 도매공급가격을 인하하여 중소마트·전통시장 등에서 저렴한 가격(5,450원/30개 이하)으로 수입란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 수요를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할 예정임

* 월 처리규모/시설수 (1~3월)2,000만개/1개소 → (4월)4,000만개/3개소 → (6월)7,000만개/5개소
 수입란 도매공급가격: (1월~5월)4,450원/30개 → (6월)4,000원/30개

○ 또한, 대형마트 등을 통해 계란 등을 할인 판매하는 “농할갑시다” 행사도 하반기에 지속 추진하여 밥상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하였음

○ 끝으로 홍부총리는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, 수입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위생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

□ 다음으로 방문한 한국농수산식품공사 이천 비축기지는 국내 최대 규모*의 농산물 비축기지로서, 주요 농산물을 수매·수입하여 보관 후 적절한 시기에 방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임

* 쌀, 신선란, 고추, 마늘, 무, 배추, 밀 등 11품목, 총 11,327톤 보유

○ 홍부총리는 농산물 보관 창고 등을 직접 시찰하며 비축 농산물의 종류, 규모, 보관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, 실제 방출 절차를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하였음

□ 홍부총리는 최근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의 수급안정 노력을 격려하며,

○ 계절에 따라 가격·수급 변동성이 큰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확한 비축 및 적시 방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

○ 이에 홍부총리는 국민의 주식인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8만톤을 6월중 신속히 공급하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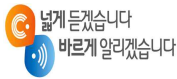
* 쌀 가격(20kg, 원) : (평년)**46,394** (3.2)59,818 (4.1)60,255 (5.3)59,798 (6.9)**61,116**

** 월별공급물량(만톤): (1~3월)16.4만톤 → (4월)4.6만톤 → (6월)8만톤

- 최근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양파, 마늘, 배추 등은 비축물량을 차질없이 확보하여 하반기 이후 기상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함

* 양파 10천톤, 마늘 2.5천톤, 봄배추 10천톤 비축 추진중

- 홍부총리는 밥상물가 불안이 지속될 경우 민생부담이 가중되고, 최근 빠른 경기회복속도도 체감하기 어려워지는 만큼,
- 농축산물의 신속한 가격·수급정상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 대응하고, 여름철 기상 변화(집중호우, 태풍 등)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임을 밝히고,
- 원자재가격 불안, 서비스가격 상승 등 물가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하였음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